



‘책방 정신세계’에는 책뿐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신비한 효험을 가진 물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티벳종 명사, 피라미드모양의 명상텐트(축소형), 목각으로 된 ‘명상 수도사’ 등으로, 서울의 동승점 내부다.

우리사회가 연일 몸살을 앓던 지난 '83년 세상의 들끓음으로부터 비껴서 조용히 내면의 고요 속으로 침잠을 지향했던 한 '冥想모임'에서 출발한 정신세계사(대표 정순득)의 지난 역사는, 마치 세상인심의 알곳음 속에서 때로 몰래 맞고 또 때로 환호받으면서도 그에 아랑곳없이 그저 제 가야 할 길만을 묵묵히 지켜 갔던 여원 구도자의 삶과 흡사해 보인다.

맑스만이 구원의 전부였고 지식이 곧 무기였으며 이상향의 혁명만을 은밀히 꿈꾸던 시절, 크리스티아누스 마르티·라즈니쉬가 무슨 귀신 씨나락깨는 소리이고, 명상의 세계가 그 무슨 황당한 나라의 이야기며, 초인생활이란 그 얼마나 현실과 괴리된 일이며서 혈기넘치던 독자를 발구르게 했던가. 때로 지친 영혼을 다독이는 위안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 '고독한 구도자'가 구원의 메시야로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면서부터다. 뉴에이지 운동의 한국군 선봉장으로서.

**세상의 이해 밖에서 곳곳한 한 길**

정신세계사가 여태껏 발행한 총 120여 종의 책목록을 살피는 것은 꽤 흥미롭다. 책이 지식을 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도구라면 이 출판사가 발행하는 책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지식은 쉼이니 그 지식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반역의' 책들이다. 그리고 외세에 시달려 주눅든 한민족의 정기를 추스려 용기백배케 하며, 물질문명에 황폐해진 신경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정신세계사 책의 구심점은 "궁극적으로 '존재에 대한 물음'에 맞춰져 있다"고 편집장 겸 편집인 강무성(34)씨는 말한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앞으로만 향하려는 사람들의 뒤덜미를 자꾸 당기는 책, 그런 본질적인 혹은 원초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사회와 나', '자연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복원하는 내용들이다.

이 출판사의 책들은 '겨레를 밝히는 책' 등 크게 6개의 갈래와, 그리고 이 6개의 나눔 속에 속하지 않는 책들을 따로 묶어 '비총서'로 구분하고 있다. '겨레를 밝히는 책'에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다루되 비교적 정통학계의 학설을 벗어난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보이는 '국수주의'다 싶을 만큼 우리것을 고취시키는 책들이 모여 있다면, '영혼의 스승들'에는 구도자들의 전기들, '수행의 시대'는 그들이 수행의 방법론으로 삼았던 참선과 호흡, 마인드컨트롤, 초월명상 등의 심신을 강화하고 의식세계의 비밀을 밝혀보인다.

'새로운 세계의 열림'에는 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던 뉴에이지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는 책들이, '정신과학총서'는 「宇宙心과 정신물리학」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등 정신의 문제와 관련깊은 과학의 현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 총서에서는 '겨레를 밝히는 책'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의 문제를 다루되 종교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의 책들을, '비총서'는 이들의 구분 속에 넣기에는 다소 애매한 그러나 존재에 관한, 우리의 근원을 짚어보는 흥

# 지치고 황폐한 영혼 달래는 명상도서 출판의 대표주자

쓸데없는 지식은 버리라는 '반역의 책' 내는 정신세계사

미롭고 색다른 시각의 소설, 산문, 우화, 전기 등이다.

"우리 출판사의 책들은 특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명상에 관한 책이라면 언어에 아무리 뛰어난 번역자라 해도 그 세계를 제대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수행자들은 또 언어가 큰 난관이지요. 분야가 특수하다 보니 한 책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교열에 교열을 보는 까닭에 출판되기도 전에 이미 적자를 떠안는 경우도 많아요."

**새 곳에 책방, 문화원도 열어**

정신세계사를 다른 출판사와 구분되게 하는 또다른 특징들은 우리나라 출판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서점을 직영한다거나 정신세계문화원

을 차려 출판물을 통해 제안된 이론들을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점일 것이다. '책방 정신세계'는 90년 동승동 대학로에 처음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대전, 최근에 마산에도 지점을 열었다.

"문명이 병이 되어 사람을 괴롭히는 시대에, 정말로 약이 되는 휴식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문을 연 '정신세계문화원'(대표 송순현)에서는 '생활참선' '건강도인술' '위파사나' '실바마인드컨트롤' '음악명상' '요가 스트레칭' '불로좌공 24식' '평화만들기' 등을 강의한다. 정신세계사를 차리고 그동안 직접 운영해 왔던 송순현씨가 지난 12월 문화원 일에만 몰두하겠다고 출판사 일에서 손을 떼는 등 최근 외양에 약간 변화가 있었다. —정혜옥 기자

## 60대 편집자 꿈꾸는 '문화의 조립자'

정신세계사 편집인 강무성씨



정신세계사에서 출판되는 책—단행본과 사외보 「나의 정신세계」 등—를 유심히 들여다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이 어느 책 할것없이 일정한 문체, 그것은 단순히 문장이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나 몹시 아름다우면서도 완벽한 문장이어서 책의 품격을 더욱 드높여주는 '문장의 힘'을 인상깊게 갖게 된다.

표지디자인까지도 직접 하는 등 우리 출판계에서 뛰어난 젊은 편집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나 있는 강무성씨는 책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인 '문장'에 대해 몹시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의 지론은 "독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문장은 스스로 책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쉬운 문장으로 표현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 제작각의 원고들을 "하나하나의 밥알을 건드리듯" 전체를 통일짓는 교열을 보는 일도 그의 몫이다.

그러나 그가 규정하는 편집자의 역할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편집자의 직업적 특징을 "문화의 조립자"로, 기능적으로

는 "엔지니어"라고 말한다. 즉, 삶 자체가 감동적인 사람, 그러나 글로써 그것을 풀어 내지는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그 삶만큼 감동적인 책으로 독자 앞에 선보이는 것도, 자간·행간, 가독성과 읽힘성 등 에디토리얼디자인 영역까지도 견비해야만 제대로 된 책을 상품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

그의 꿈은 "60대 편집자"가 되는 것이다. 자리가 잡히면 다들 사장으로 변신해 버리고 마는 우리의 출판 풍토에서 그는 "영원한 편집자"이기를 원하는 진짜 편집자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